

IIT

INSTITUTE FOR
INTERNATIONAL
TRADE

Trade Focus

Vol.14 No.13

중국의 가공무역 수입 변화 및 시사점

2015년 4월

박 솔 연구원

오세환 수석연구원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목차

[요 약]

I. 중국의 수입 추이	1
II. 중국의 가공무역 수입동향	4
1. 품목별 가공무역 수입동향	4
2. 국가별 가공무역 수입동향	8
3. 對주요국 품목별 가공무역 수입동향	12
III. 결론 및 시사점	22

☐ 보고서 내용 문의처

박 솔 연구원 (☎ 02-6000-5153, mysoul@kita.net)

오 세 환 수석연구원 (☎ 02-6000-5184, sehvano@kita.net)

* 『Trade Focus』는 국제무역연구원 홈페이지([http : //iit.kita.net](http://iit.kita.net))를 통해서도 제공되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계 수입의 10.3%(WTO, 2014년)를 차지하는 중국의 수입이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중국의 가공무역 제한 조치로 전통적으로 對중국 가공무역 비중이 높은 아시아 국가들의 부진이 두드러지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부터 2014년 기간 중 중국의 연평균 수입증가율은 10.8%에 달했으나 동 기간 한국(9.0%), 일본(2.8%), 대만(6.0%) 등으로부터의 수입은 전체 수입증가율을 하회하며 부진한 상황이다.

2014년 중국의 가공무역 수입 규모는 4,943억 달러이며 이중 반도체가 1,176억 달러로 약 1/4의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전기기기, 광학기기, 기계류, 석유제품 등이 전체 가공무역 수입액의 절반 이상(54.6%) 차지하고 있다. 국가별로는 중국의 對한국 가공무역 수입액이 986억 달러로 1/5의 비중을 차지한데 이어 대만, 일본 등 아시아 3국으로부터의 가공무역 수입이 중국의 전체 가공무역 수입의 절반 가량(46.5%)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가공무역 수입액은 2007년 대비 2014년 기간 중 연평균 4.3% 증가에 그쳐 전체 수입증가율(10.8%)을 하회했다. 이에 따라 중국의 가공무역 수입이 총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동 기간 중 38.5%에서 25.2%로 크게 떨어졌다. 품목별로는 플라스틱제품, 반도체, 광학기기, 철강제품 등을 중심으로 큰 폭 하락했다.

대만, 일본은 가공무역 비중이 2007년에 비해 2014년 각각 18.2%p, 10.3%p 하락한 반면 우리나라는 2.2%p의 소폭 하락에 그쳤다. 향후 중국이 내수중심 성장, 신산업 육성, 무역 부가가치 향상 등을 추진함에 따라 가공무역 비중은 추세적으로 줄어들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은 불안정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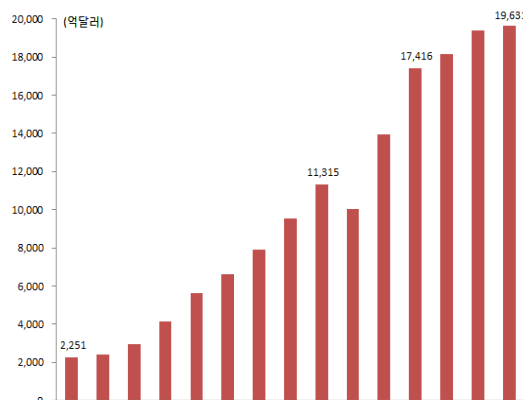
중국의 가공무역 정책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국 산업구조 고도화에 발맞춘 고부가가치 수출상품 개발, 전자상거래 채널을 활용한 내수시장 진출, 한·중 FTA 활용 등 대중 수출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본문

I. 중국의 수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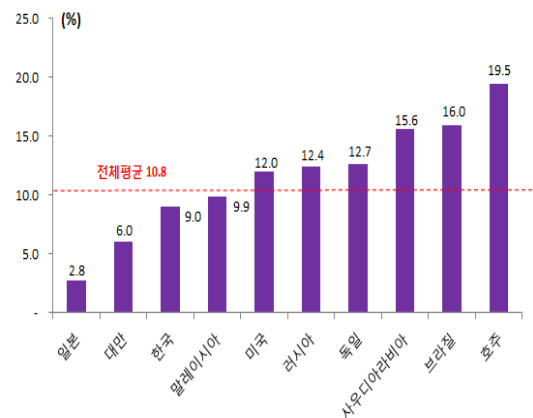
- 2000년대 들어 중국의 수입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를 제외하고 연간 두 자릿수 증가세를 기록했으나 2012년 이후 한 자릿수에 그치며 증가세 둔화
 - 2000-2008년 동안 중국의 수입은 연평균 23.8%로 증가하여 수입액 규모가 5배 이상 확대됨
 - 글로벌 금융위기로 2009년 수입이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11.3%) 이후 2010-2011년간 두 자릿수(31.7%) 증가세를 회복
 - 그러나 2012년부터 최근 3년간 4.1% 증가에 그치며 증가세 둔화
 - * 중국 연간 수입증가율(전년비, %) : ('00년) 35.8 → ('03년) 39.9 → ('07년) 20.8 → ('10년) 38.9 → ('12년) 4.3 → ('14년) 1.1
-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부터 2014년 기간 중 국별 수입증가율 비교에서 한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 국가들의 부진이 두드러짐
 - 2008-2014년 동안 중국의 연평균 수입증가율은 10.8%에 달했으나 동 기간 한국(9.0%), 일본(2.8%), 대만(6.0%), 말레이시아(9.9%) 등은 전체 수입증가율을 하회하며 부진
 - 반면 미국(12.0%), 독일(12.7%), 호주(19.5%) 등은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선전

<중국 수입 추이>



자료 : 한국무역협회(K-Stat)

<중국의 국별 수입증가율('08~'14년, 연평균)>



주 : 2014년 중국의 수입 상위국 기준
 자료 : 해관총서

□ 중국의 對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수입 부진은 중국의 가공무역 제한 조치에 따른 영향이 일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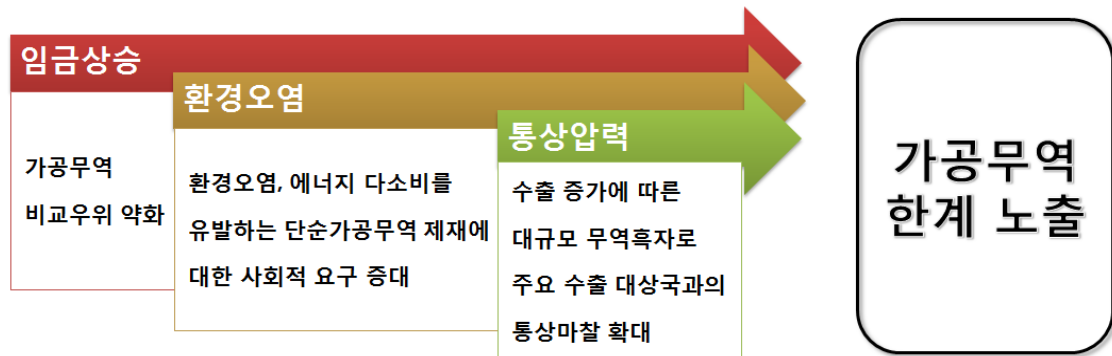
- 1980~90년대 중국은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수출을 통한 경제성장을 위해 가공무역* 정책을 적극 추진

* 국외에서 원재료/부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가공, 다시 수출하는 무역방식

-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에너지 다소비형 가공무역에 따른 환경오염, 무역흑자 확대에 따른 통상압력 가중 등의 문제가 대두되자 가공무역 제한 조치* 시행

* 가공무역 금지품목 종류를 확대하는 한편 각종 혜택(증치세 환급 및 관세 면제 등)을 폐지

<중국 가공무역의 한계 및 문제점>



<중국의 가공무역 장려/제한 조치 전개 과정>

발표시기	구분	내 용
1979	장려	진료가공 근거 마련
		가공조립과 보상무역의 심사절차, 외환, 세금우대 등 부여
1987		보증금 대장제도 도입
1999	제한	가공무역 관련제품을 허용, 제한, 금지 등 3분류로 나누어 관리 시작
2004		가공무역 금지품목 발표, 341개(화학비료, 중고 기계, 향생제 등)
2006		가공무역 금지품목 발표, 804개(희토류, 철광석, 원목 등)
2007		가공무역 금지품목 발표, 1,140개로 확대(강철판, 철판이프, 농약 등)
2008		가공무역 금지품목 발표, 1,816개(광산품, 화공품, 철강제품 등)
2008	완화	수출가공기업의 은행보장금대장제도 완화
2009		가공무역 제한대상품목 500개, 금지대상품목 1,789개로 축소
2010	제한	가공무역 금지품목 1,803개로 확대(44개 추가)
2014		가공무역 금지품목 1,871개로 확대

자료 : 중국 상무부(<http://www.mofcom.gov.c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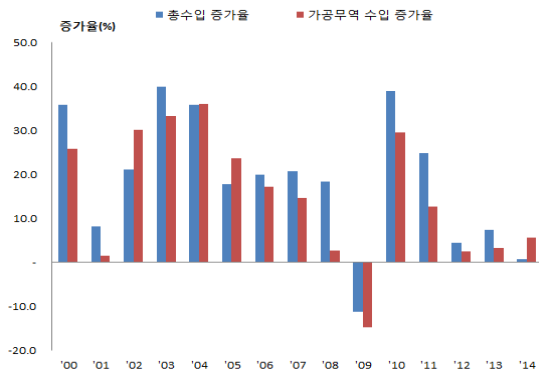
□ 가공무역 제한 조치로 2000년대 이후 중국의 가공무역 수입증가율은 총 수입증가율을 하회하며 부진

○ 중국의 총 수입액 대비 가공무역 수입 비중도 2007년 이후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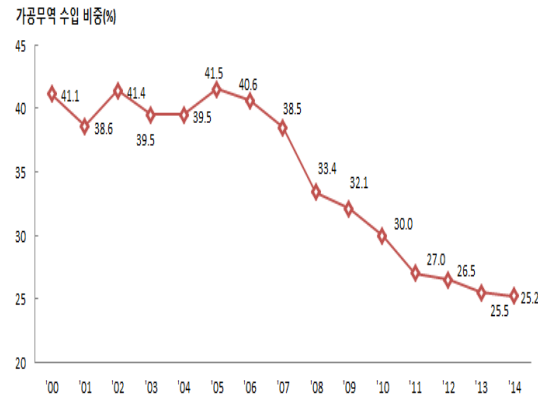
* 가공무역 수입증가율(전년비%,CEIC) ('00년) 25.8 → ('07년) 14.7 → ('14년) 5.7

* 총수입 대비 가공무역 수입 비중(%) : ('00년) 41.1 → ('07년) 38.5 → ('14년) 25.2

<중국의 가공무역 수입증가율 추이>



<중국의 가공무역 수입비중 추이>



자료 : CEIC, 해관총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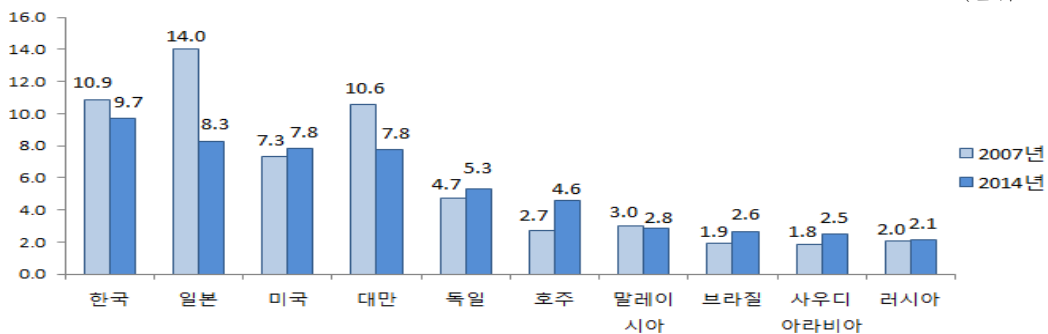
○ 이에 따라 전통적으로 가공무역 비중이 높은 한국, 일본, 대만, 말레이시아 등과 같은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수입 감소가 두드러지고 있어 중국의 가공무역 수입 트렌드 변화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음

– 2007-2014년 동안 중국의 국별 수입 비중에서 한국(9.0%), 일본(2.8%), 대만(6.0%) 등의 비중은 축소

– 반면 미국(0.5%p), 독일(0.6%p), 호주(1.9%p) 등 非아시아권 국가들은 점유율이 확대

<중국의 주요국별 수입비중 변화>

(단위 : %)



주 : 비중은 중국의 전체수입 대비 해당국가의 수입비중

자료 : 한국무역협회(K-Stat)

Ⅱ. 중국의 가공무역 수입 동향

이하 분석대상 자료는 2015.3월 기준 최신의 중국 해관총서 수입통계(가공무역 수입통계 포함) 원시자료로 한국무역협회(K-Stat), CEIC 등에서 제공하는 중국무역통계와 업데이트 시점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1. 품목별 가공무역 수입동향

□ 2014년 기준 중국의 가공무역 수입 규모는 4,943억 달러이며 이중 반도체가 1,176억 달러로 약 1/4의 비중을 차지

- 주요 품목 중 반도체(비중 23.8%)를 비롯 전기기기(11.4%)*, 광학기기(7.1%)*, 기계류(6.2%), 석유제품(6.1%) 등은 전체 가공무역 수입액의 절반 이상(54.6%) 차지

* 인쇄회로, 카메라, 축전지, 변환기 등

** 디스플레이 패널 및 부품

- 반면 가전제품, 자동차/부품, 섬유 등은 중국의 가공무역 수입액에서 각각 1.3%, 0.3%, 0.1% 등의 비중을 불과

<2014년 중국의 주요 품목별 가공무역 수입 현황>

(단위 : 억달러, %)

순위	품목명	금액	비중	비중(누계)
1	반도체	1,176	23.8	23.8
2	전기기기	563	11.4	35.2
3	광학기기	350	7.1	42.3
4	기계류	305	6.2	48.4
5	석유제품	303	6.1	54.6
6	휴대폰	275	5.6	60.1
7	플라스틱제품	251	5.1	65.2
8	철강제품	241	4.9	70.1
9	화학공업제품	207	4.2	74.3
10	섬유사/직물	129	2.6	76.9
11	고무/가죽제품	90	1.8	78.7
12	가전제품	65	1.3	80.0
13	자동차/부품	14	0.3	80.3
14	섬 유	5	0.1	80.4
-	기 타	967	19.6	100.0
-	전 체	4,943	100.0	100.0

주 : 1) 순위는 가공무역 수입액 기준

2) 비중은 전체 가공무역 수입액 중 해당 품목의 가공무역 수입액 비중

자료 : 해관총서

□ 2014년 중국의 가공무역 수입액 상위 품목 중 반도체, 전기기기, 광학기기, 휴대폰 등은 가공무역 수입의존도*가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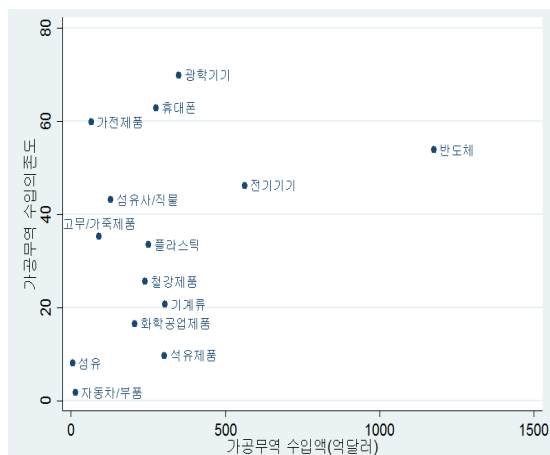
* 품목 i에 대한 가공무역 수입의존도 = 품목 i의 가공무역 수입액 / 품목 i의 전체 수입액 × 100

- 가공무역 수입 상위 품목 중 반도체(53.8%), 전기기기(46.2%), 광학기기(69.9%), 휴대폰(62.8%) 등은 가공무역 수입의존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기계류(20.6%), 화공품(16.5%), 석유제품(9.6%) 등은 상대적으로 낮음
- 이중 광학기기와 휴대폰의 경우 가공무역 수입의존도가 각각 69.9%와 62.8%로 여타 품목에 비해 매우 높음
- 한편 섬유, 자동차/부품 등은 가공무역 수입액 뿐만 아니라 가공무역 수입의존도에서도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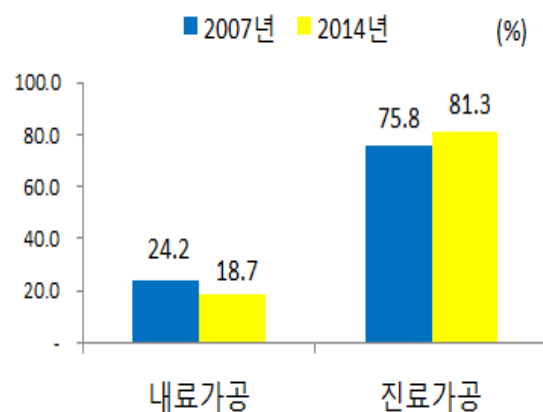
□ 중국의 가공무역은 단순 임가공 비중은 하락한 반면 부가가치가 다소 높은 진료가공은 상승

- 가공무역 수입 중 단순 위탁가공 형태의 가공무역(내료가공) 비중은 2007년 24.2%에서 2014년 18.7%로 하락한 반면, 중국 내 가공무역 기업이 원부자재를 수입, 가공한 후 직접 수출하는 형태의 가공무역(진료가공) 비중은 동기간 75.8%에서 81.3%로 확대

<2014년 중국의 품목별 가공무역 수입액 및 수입의존도* 현황>



<중국의 가공무역 형태별 비중 변화>



* 품목 i에 대한 가공무역 수입의존도 = 품목 i의 가공무역 수입액 / 품목 i의 전체 수입액 × 100

자료 : 중국, 해관총서

□ 2008-2014년 중국의 전체 수입액은 연평균 10.8% 증가했으나 이중 가공무역 수입액은 4.3% 증가에 그침

- 동 기간 중 반도체, 전기기기, 광학기기, 기계류 등 가공무역 수입액 상위 품목들의 가공무역 수입증가율은 각 품목의 총수입 증가율을 하회

* 주요 품목 가공무역 수입증가율[총수입 증가율]('08-'14년, 연평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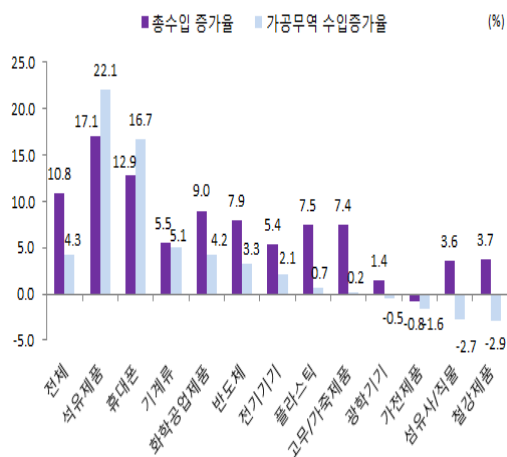
반도체 3.3[7.9], 전기기기 2.1[5.4], 광학기기 -0.5[1.4], 기계류 5.1[5.5]

- 한편 주요 품목 중 석유제품, 휴대폰 등 일부 품목에서만 가공무역 수입증가율이 총수입 증가율을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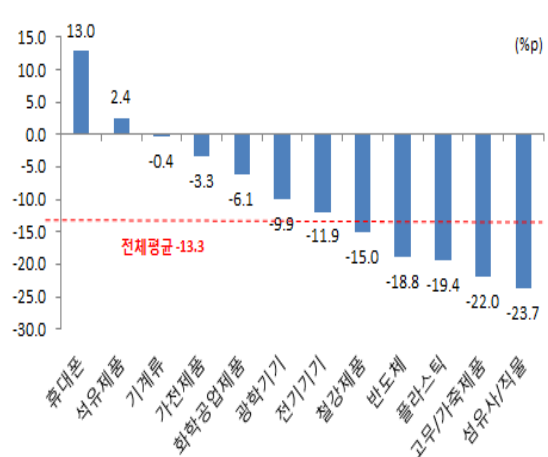
□ 이에 따라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대비 2014년 주요 품목 대부분에서 가공무역 수입의존도가 하락

- 플라스틱제품(-19.4%p), 반도체(-18.8%p), 전기기기(-11.9%p), 광학기기(-9.9%p) 등은 가공무역 수입의존도가 하락
- 반면 휴대폰(13.0%p), 석유제품(2.4%p)과 같은 일부 품목에서는 가공무역 수입의존도가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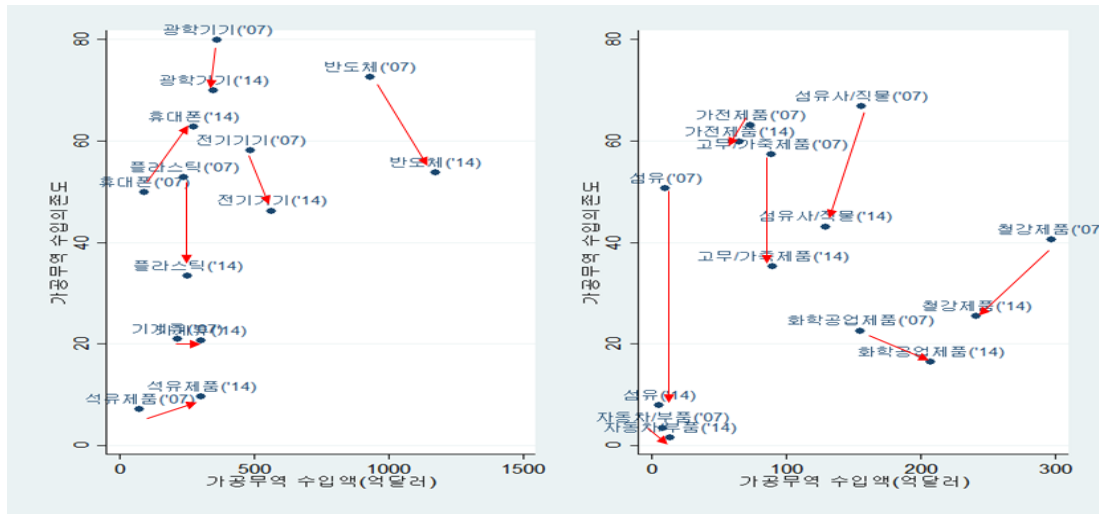
<중국의 주요 품목별 총수입 및 가공무역 수입증가율('08~'14년, 연평균)>



<중국의 주요 품목별 가공무역 수입의존도 변화('14-'07년)>



<중국의 품목별 가공무역 수입액 및 수입의존도 변화('07-'14년)>



<중국의 주요 품목별 가공무역 수입의존도 추이>

(단위 : 억달러, %)

품목명	2007년			2014년		
	총수입액	가공무역 수입액	가공무역 수입의존도*	총수입액	가공무역 수입액	가공무역 수입의존도*
반도체	1,287	934	72.6	2,185	1,176	53.8
전기기기	841	489	58.1	1,220	563	46.2
광학기기	453	362	79.8	500	350	69.9
기계류	1,023	215	21.0	1,486	305	20.6
석유제품	1,050	75	7.1	3,168	303	9.6
휴대폰	188	94	49.8	439	275	62.8
플라스틱제품	453	239	52.8	752	251	33.4
철강제품	733	297	40.5	947	241	25.5
화학공업제품	685	155	22.6	1,255	207	16.5
섬유사/직물	234	156	66.8	299	129	43.1
고무/가죽제품	156	89	57.3	256	90	35.3
가전제품	115	73	63.1	109	65	59.8
자동차/부품	221	8	3.5	895	14	1.6
섬유	20	10	50.7	61	5	8.0
전체	9,558	3,684	38.5	19,608	4,943	25.2

* 품목 i에 대한 가공무역 수입의존도 = 품목 i의 가공무역 수입액 / 품목 i의 전체 수입액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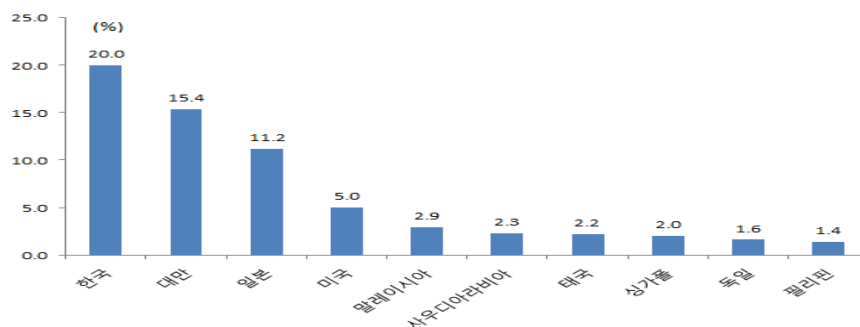
자료 : 해관총서

2. 국가별 가공무역 수입동향

□ 2014년 기준 중국의 가공무역 수입 상대국 1위는 한국

- 지난해 중국의 전체 가공무역 수입액 4,943억 달러 중 對한국 수입은 986억 달러로 1/5을 차지
 - 우리나라를 비롯 대만(비중 15.4%), 일본(11.2%) 등 아시아 3국으로부터의 가공무역 수입이 전체 가공무역 수입의 절반 가량(46.5%)을 차지
- 가공무역 수입액 기준 상위 10위권내 국가는 아시아권 국가들이 대부분이며 非아시아권 국가는 3개국에 불과
 - 비아시아권 국가는 미국(비중 5.0%), 사우디아라비아(2.3%), 독일(1.6%) 등임

<2014년 중국의 주요국별 가공무역 수입 비중>



<2014년 중국의 주요국별 가공무역 수입 현황>

(단위 : 억달러, %)

국가명	금액	비중	비중(누계)
한 국	986	20.0	20.0
대 만	762	15.4	35.4
일 본	552	11.2	46.5
미 국	245	5.0	51.5
말레이시아	145	2.9	54.5
사우디아라비아	115	2.3	56.8
태 국	107	2.2	59.0
싱가폴	97	2.0	60.9
독 일	79	1.6	62.5
필리핀	70	1.4	64.0
기 타	1,782	36.0	100.0
전 체	4,943	100.0	100.0

주 : 비중은 전체 가공무역 수입액 중 해당 국가의 가공무역 수입액
 자료 : 해관총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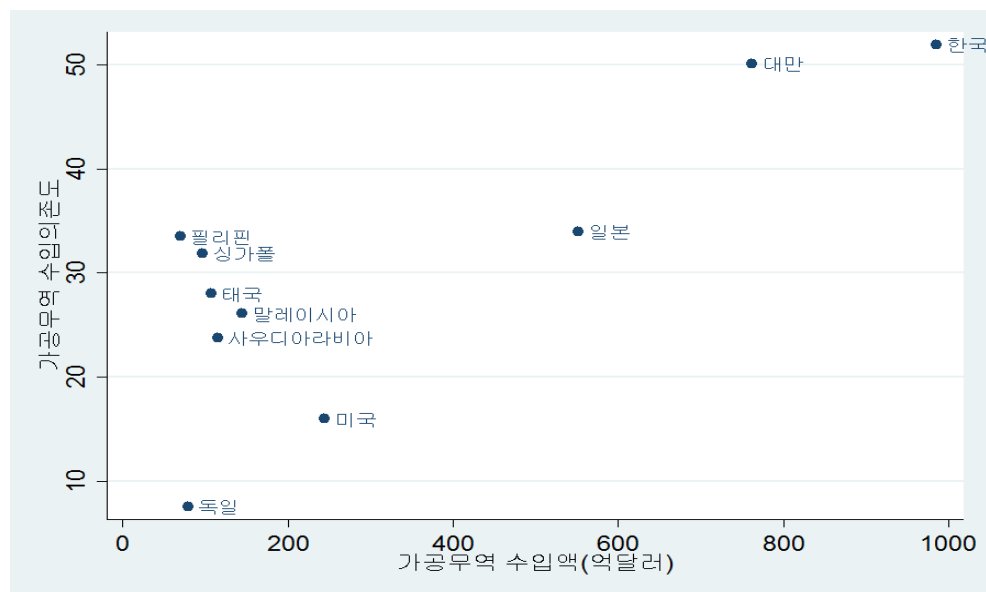
□ 2014년 가공무역 수입액 상위 국가 중 한국, 대만 등은 가공무역 수입 비중(가공무역 수입의존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교역상대국 i에 대한 가공무역 수입의존도 =

$$\text{교역상대국 i로부터 가공무역 수입액} / \text{교역상대국 i로부터 전체 수입액} \times 100$$

- 지난해 중국의 가공무역 수입 상위 국가 중 한국(51.9%), 대만(50.1%) 등은 가공 무역 수입의존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일본(34.0%)은 상대적으로 낮음
-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등은 가공무역 수입의존도가 20~30%대이나 수입액이 낮음
- 한편 독일은 가공무역 수입액과 수입의존도 측면에서 주요국 대비 상대적으로 매우 낮음

<2014년 중국의 국가별 가공무역 수입액 및 수입의존도* 현황>



* 교역상대국 i에 대한 가공무역 수입의존도 =

$$\text{교역상대국 i로부터 가공무역 수입액} / \text{교역상대국 i로부터 전체 수입액} \times 100$$

□ 2008-2014년 동안 한국, 대만, 일본 등으로부터의 가공무역 수입증가율은 각국에 대한 총수입 증가율을 하회

- 동 기간 중국의 한국으로부터의 연평균 가공무역 수입증가율은 8.4%로 대만(1.4%), 일본(-1.0%) 등에 비해 높음
- 한편 중국의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의 연평균 가공무역 수입 증가율은 24.0%로 對사우디아라비아 총수입 증가율 15.6%를 큰 폭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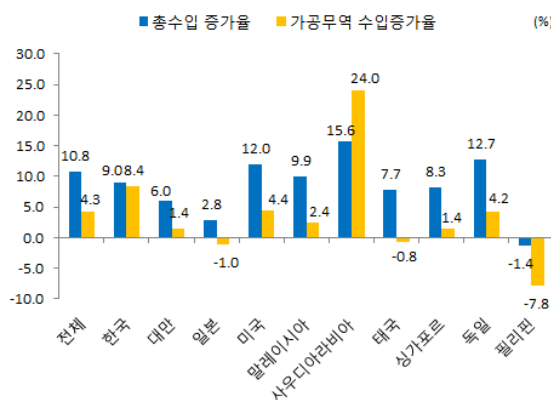
- 2014년 기준 對사우디아라비아 가공무역 수입액 115억 달러 중 원유가 90억 달러를 차지하여 최근 가공무역 확대는 석유제품에 기인

* 중국의 對사우디아라비아 원유 가공무역 수입액('07년→'14년): 15억 달러 → 90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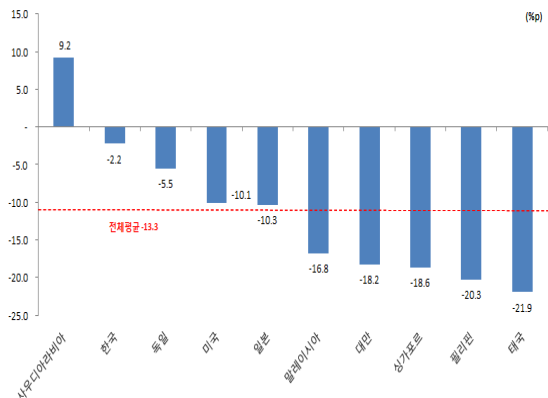
□ 이에 따라 금융위기전인 2007년부터 2014년 동안 중국의 주요 교역상대국에 대한 가공무역 수입의존도는 전반적으로 하락

- 동 기간 가공무역 수입 상위국인 대만(-18.2%p), 일본(-10.3%p), 미국(-10.1%p), 말레이시아(-16.8%p) 등에 대한 가공무역 수입의존도는 큰 폭으로 하락한 반면 우리나라는(-2.2%p)는 상대적으로 소폭 하락에 그침
- 반면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의 가공무역 수입의존도는 큰 폭 확대(9.2%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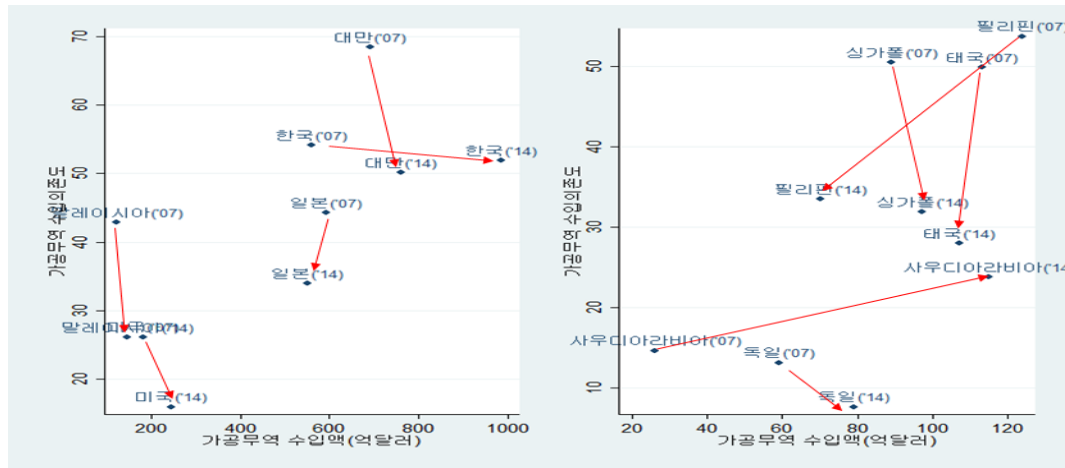
<중국의 주요 국가별 총수입 및 가공 무역 수입증가율('08~'14년, 연평균)>



<중국의 주요 국가별 가공무역 수입의존도 변화('14-'07년)>



<중국의 국가별 가공무역 수입액 및 수입의존도 변화('07-'14년)>



<중국의 주요 국가별 가공무역 수입의존도 추이>

(단위 : 억달러, %)

국가명	2007년			2014년		
	총수입액	가공무역 수입액	가공무역 수입의존도*	총수입액	가공무역 수입액	가공무역 수입의존도*
한 국	1,037	561	54.1	1,901	986	51.9
대 만	1,010	691	68.4	1,520	762	50.1
일 본	1,340	594	44.3	1,625	552	34.0
미 국	694	182	26.2	1,530	245	16.0
말레이시아	287	123	42.9	557	145	26.1
사우디아라비아	176	26	14.6	486	115	23.8
태 국	227	113	49.9	382	107	28.0
싱가폴	175	89	50.5	305	97	31.9
독 일	454	59	13.1	1,048	79	7.6
필리핀	231	124	53.8	210	70	33.5
전 체	9,558	3,684	38.5	19,608	4,943	25.2

* 교역상대국 i에 대한 가공무역 수입의존도 =

교역상대국 i로부터 가공무역 수입액 / 교역상대국 i로부터 전체 수입액 × 100

자료 : 해관총서

3. 對주요국 품목별 가공무역 수입동향

(1) 한국

□ 2014년 중국의 對한국 가공무역 수입액 상위 품목은 반도체(326억 달러), 광학기기(124억 달러), 전기기기(82억 달러) 등임

○ 지난해 중국의 對한국 가공무역 수입 상위 품목 중 반도체(65.2%), 광학기기(70.0%), 전기기기(61.1%), 휴대폰(88.6%) 등은 가공무역 수입의존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화학공업제품, 플라스틱제품 등은 각각 27.7%, 40.9%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

○ 한편 석유제품, 자동차/부품, 섬유 등은 가공무역 수입액 뿐만 아니라 수입의존도에서도 낮게 나타남

□ 지난해 중국의 對세계 가공무역 수입과 비교시 주요 품목에서 對한국 가공무역 수입의존도는 세계 평균을 상회

○ 중국의 對한국 수입 중 휴대폰(88.6%), 섬유사/직물(66.5%), 고무/가죽제품(61.3%) 등의 가공무역 수입의존도는 세계 평균을 크게 상회

○ 반면 석유제품의 경우 對한국 가공무역 수입의존도는 1.0%로 세계 평균 9.6%를 크게 하회

- 2014년 기준 중국의 對한국 석유제품 수입 95억 달러 중 가공무역 수입액은 1억 달러 수준에 그쳐 주요국 대비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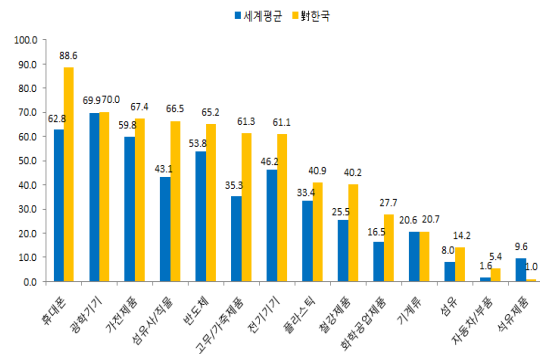
* 중국의 주요국별 석유제품 가공무역 수입액('14년, 억달러):

(사우디) 90 (앙골라) 48 (오만) 35 (이라크) 26 (쿠웨이트) 24 (한국) 1

<2014년 중국의 對한국 품목별 가공무역 수입액 및 수입의존도>



<2014년 중국의 對세계 · 對한국 품목별 가공무역 수입의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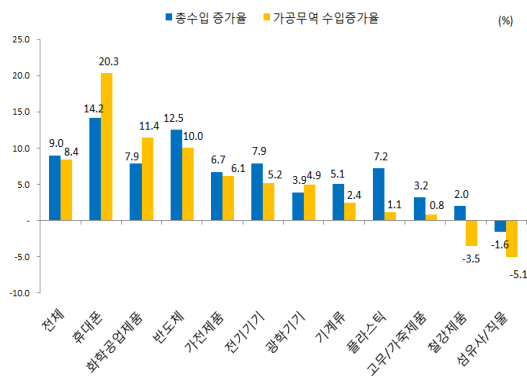
□ 2008-2014년 중국의 對한국 가공무역 연평균 수입증가율은 8.4%로 총수입 증가율(9.0%) 대비 소폭 하회

- 對한국 가공무역 수입 상위 품목 중 반도체, 전기기기 등의 가공무역 수입증가율은 해당 품목의 총수입 증가율을 하회. 반면 휴대폰, 화학공업제품 등은 상회하여 전체적인 가공무역 수입증가율 감소폭이 적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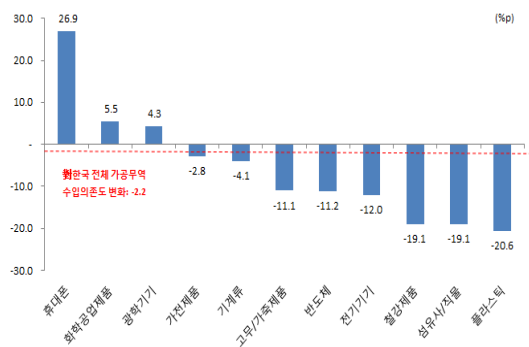
□ 이에 따라 2007-2014년 동안 중국의 對한국 가공무역 수입의존도는 54.1%에서 51.9%로 소폭 하락

- 반도체, 전기기기, 철강, 플라스틱제품 등 다수품목은 가공무역 수입의존도가 하락했으나 휴대폰, 화학공업제품, 광학기기 등 일부 품목은 가공무역 수입의존도가 상승

<중국의 對한국 주요 품목별 총수입 및 가공무역 수입증가율('08~'14년, 연평균)>



<중국의 對한국 품목별 가공무역 수입의존도 변화('14-'07년)>



<중국의 對한국 품목별 가공무역 수입의존도 추이>

(단위 : 억달러, %)

품목명	2007년			2014년		
	총수입액	가공무역 수입액	가공무역 수입의존도*	총수입액	가공무역 수입액	가공무역 수입의존도*
반도체	220	168	76.3	501	326	65.2
광학기기	136	89	65.7	177	124	70.0
전기기기	79	58	73.2	134	82	61.1
휴대폰	35	22	61.8	89	79	88.6
화학공업제품	109	24	22.2	185	51	27.7
플라스틱제품	77	47	61.5	125	51	40.9
철강제품	77	46	59.3	89	36	40.2
기계류	101	25	24.8	142	29	20.7
섬유사/직물	26	22	85.7	23	15	66.5
가전제품	12	8	70.2	19	13	67.4
고무/가죽제품	13	10	72.3	17	10	61.3
자동차/부품	21	1	5.2	57	3	5.4
석유제품	65	4	5.7	95	1	1.0
섬유	1	1	50.6	2	0	14.2
전체	1,037	561	54.1	1,901	986	51.9

* 품목 i에 대한 가공무역 수입의존도 = 품목 i의 가공무역 수입액 / 품목 i의 전체 수입액 × 100

자료 : 해관총서

(2) 대만

□ 2014년 중국의 對대만 가공무역 수입액 상위 품목은 반도체(357억 달러), 광학기기(112억 달러), 전기기기(51억 달러) 등임

○ 동 품목의 가공무역 수입의존도는 반도체(53.6%), 광학기기(77.4%), 전기기기(47.8%) 등으로 높게 나타남

– 중국의 對대만 가공무역 수입의존도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전자제품(광학기기, 가전, 휴대폰 등)을 중심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非전자제품 중에서는 고무/가죽제품(64.2%), 섬유사/직물(59.3%), 철강제품(55.8%) 등의 가공무역 수입의존도가 높음

○ 반면 기계류, 석유제품 등의 경우 가공무역 수입액과 수입의존도에서 낮게 나타남

□ 지난해 중국의 對세계 가공무역 수입과 비교해 보면 대부분의 품목에서 對대만 가공무역 수입의존도는 세계 평균을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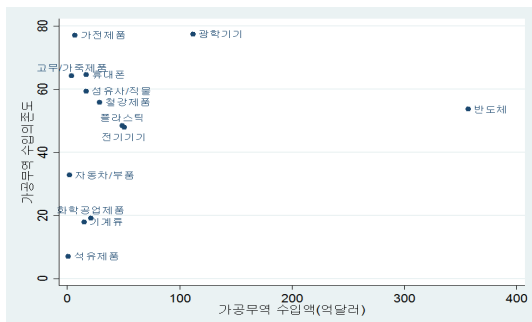
○ 반면 반도체(53.6%), 기계류(17.9%), 석유제품(7.0%) 등은 세계평균 가공무역 수입의존도를 하회

– 반도체의 경우 CPU, 집적회로반도체부품, 기타집적회로반도체 등에서 가공무역 수입의존도 하락폭이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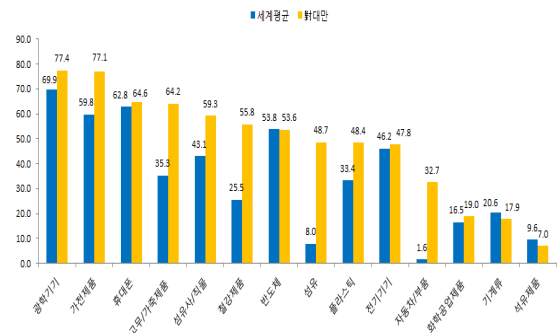
* 중국의 對대만 반도체 세부 품목별 가공무역 수입의존도 변화('07→'14년,%):

- 메모리(HS854232) : 75.3 → 70.1 (-5.2%p)
- CPU(HS854231) : 76.1 → 60.0 (-16.1%p)
- 기타집적회로반도체(HS854239) : 73.9 → 31.1 (-42.8%p)
- 집적회로반도체부품(HS854290) : 90.0 → 50.0 (-40.0%p)

<2014년 중국의 對대만 품목별
가공무역 수입액 및 수입의존도>



<2014년 중국의 對세계 · 對대만
품목별 가공무역 수입의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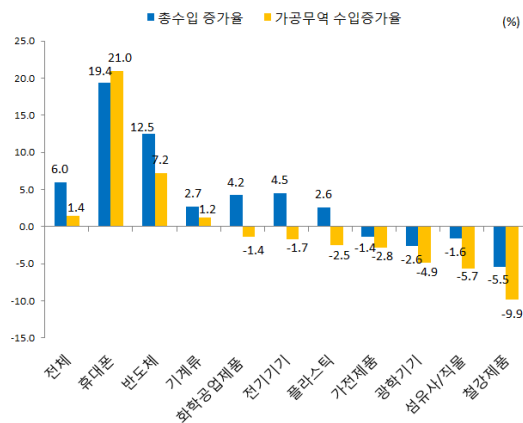
□ 2008-2014년 중국의 對대만 가공무역 연평균 수입증가율은 1.4%로 총수입 증가율(6.0%)을 큰 폭 하회

- 대부분의 품목에서 가공무역 수입증가율이 해당품목의 총수입 증가율을 하회하고 있으나 휴대폰은 가공무역 수입증가율이 총수입 증가율을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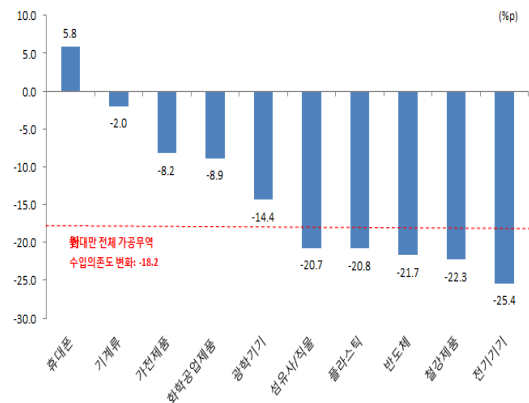
□ 이에 따라 중국의 對대만 가공무역 수입의존도는 2007년 68.4%에서 2014년 50.1%로 큰 폭 하락

- 한편 휴대폰, 석유제품 등 일부 품목에서는 이전 대비 가공무역 수입의존도가 상승

<중국의 對대만 주요 품목별 총수입 및 가공무역 수입증가율('08~'14년, 연평균)>



<중국의 對대만 품목별 가공무역 수입의존도 변화('14-'07년)>



<중국의 對대만 품목별 가공무역 수입의존도 추이>

(단위 : 억달러, %)

품목명	2007년			2014년		
	총수입액	가공무역 수입액	가공무역 수입의존도*	총수입액	가공무역 수입액	가공무역 수입의존도*
반도체	292	220	75.4	666	357	53.6
광학기기	174	159	91.7	145	112	77.4
전기기기	79	58	73.2	107	51	47.8
플라스틱제품	84	58	69.2	101	49	48.4
철강제품	78	61	78.1	52	29	55.8
화학공업제품	83	23	27.9	110	21	19.0
휴대폰	8	5	58.8	27	17	64.6
섬유사/직물	32	26	80.0	29	17	59.3
기계류	71	14	19.9	86	15	17.9
가전제품	10	8	85.3	9	7	77.1
고무/가죽제품	10	8	77.7	7	4	64.2
자동차/부품	3	1	40.6	5	2	32.7
석유제품	12	0	2.0	12	1	7.0
섬유	0	0	59.3	1	0	48.7
전체	1,010	691	68.4	1,520	762	5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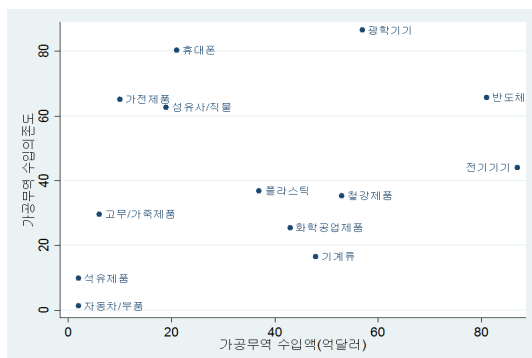
* 품목 i에 대한 가공무역 수입의존도 = 품목 i의 가공무역 수입액 / 품목 i의 전체 수입액 × 100

자료 : 해관총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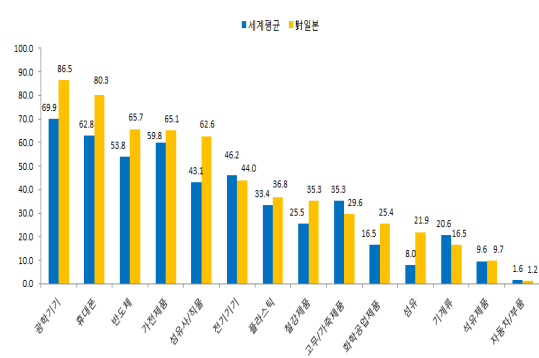
(3) 일본

- 2014년 중국의 對일본 가공무역 수입액 상위 품목은 전기기기(87억 달러), 반도체(81억 달러), 광학기기(57억 달러) 등임
 - 전기기기, 반도체, 광학기기는 가공무역 수입액과 수입의존도가 높은 반면, 철강, 기계류, 화학공업제품의 경우 수입액은 일정규모 이상이나 수입의존도가 낮음
 - 휴대폰과 가전제품의 경우 가공무역 수입의존도가 각각 80.3%, 65.1%로 높으나, 수입액이 각각 21억 달러, 10억 달러로 소규모에 그침
- 지난해 중국의 對세계 가공무역 수입과 비교시 주요 품목에서 對일본 가공무역 수입의존도는 세계 평균을 상회했으나 일본으로부터의 가공무역 수입 규모가 큰 전기기기의 경우 세계 평균을 하회
 - 2014년 중국의 對세계 전기기기 가공무역 수입의존도는 46.2%에 달했으나 對일본 수입의 경우 44.0%로 세계 평균을 하회한 가운데 고무/가죽제품, 기계류, 자동차/부품 등에서도 중국의 對일본 수입 중 가공무역 수입의존도가 세계 평균을 하회

<2014년 중국의 對일본 품목별
가공무역 수입액 및 수입의존도>



<2014년 중국의 對세계 · 對일본
품목별 가공무역 수입의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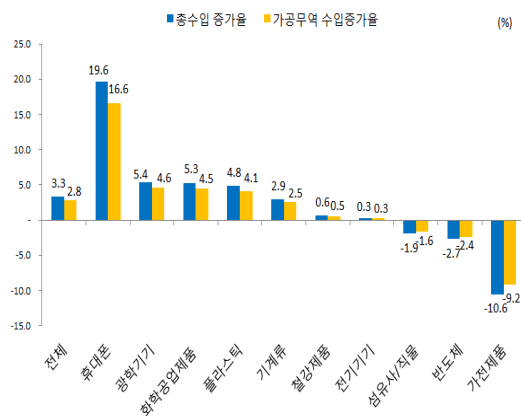
□ 2008-2014년 중국의 對일본 가공무역 연평균 수입증가율은 2.8%로 총수입 증가율(3.3%)을 소폭 하회

○ 품목 대부분에 걸쳐 가공무역 수입증가율이 총수입증가율보다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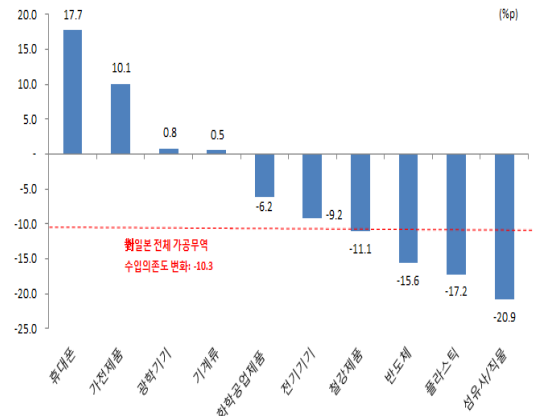
□ 중국의 對일본 가공무역 수입의존도는 2007년 44.3%에서 2014년 34.0%로 큰 폭 하락

○ 휴대폰, 가전제품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품목에서 對일본 가공무역 수입의존도가 하락

<중국의 對일본 주요 품목별 총수입 및 가공무역 수입증가율('08~'14년, 연평균)>



<중국의 對일본 품목별 가공무역 수입의존도 변화('14-'07년)>



<중국의 對일본 품목별 가공무역 수입의존도 추이>

(단위 : 억달러, %)

품목명	2007년			2014년		
	총수입액	가공무역 수입액	가공무역 수입의존도*	총수입액	가공무역 수입액	가공무역 수입의존도*
전기기기	194	103	53.1	197	87	44.0
반도체	145	118	81.3	123	81	65.7
광학기기	48	41	85.7	66	57	86.5
철강제품	146	68	46.5	152	53	35.3
기계류	247	40	16.0	292	48	16.5
화학공업제품	124	39	31.6	169	43	25.4
플라스틱제품	75	41	54.0	100	37	36.8
휴대폰	9	6	62.6	26	21	80.3
섬유사/직물	34	29	83.5	31	19	62.6
가전제품	31	17	55.0	16	10	65.1
고무/가죽제품	13	6	45.4	19	6	29.6
자동차/부품	7	2	3.0	160	2	1.2
석유제품	21	1	5.7	17	2	9.7
섬유	1	1	66.2	1	0	21.9
전체	1,340	594	44.3	1,625	552	34.0

* 품목 i에 대한 가공무역 수입의존도 = 품목 i의 가공무역 수입액 / 품목 i의 전체 수입액 × 100
자료 : 해관총서

(4) 미국

□ 2014년 중국의 對미국 가공무역 수입액 상위 품목은 반도체(70억 달러), 기계류(30억 달러), 플라스틱제품(23억 달러) 등으로 나타남

○ 반도체의 경우 가공무역 수입의존도는 63.4%로 높으나 기계류(19.0%), 플라스틱제품(33.9%) 등은 상대적으로 낮음

– 반도체 세부 품목 중에서는 메모리 반도체에서 중국의 對미국 가공무역 수입의존도가 이전 대비 상승

* 중국의 對미국 반도체 세부 품목별 가공무역 수입의존도 변화('07→'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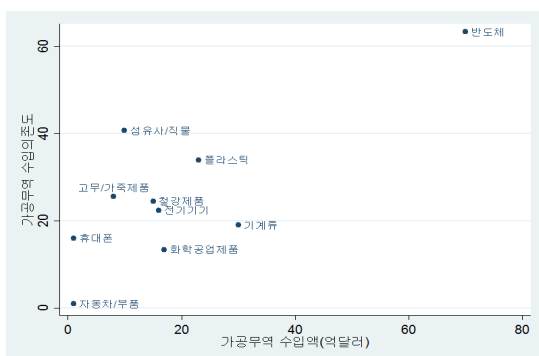
- 메모리(HS854232) : 84.3 → 89.9 (5.6%p)
- CPU(HS854231) : 95.8 → 93.2 (-2.6%p)
- 집적회로(HS854233) : 58.1 → 33.4 (-24.7%p)
- 기타집적회로반도체(HS854239) : 77.7 → 17.1 (-60.6%p)
- 집적회로반도체부품(HS854290) : 82.5 → 29.2 (-53.3%p)

○ 한편 자동차/부품, 휴대폰, 고무/가죽제품, 화학공업제품 등 대부분의 품목은 가공무역 수입액과 수입의존도가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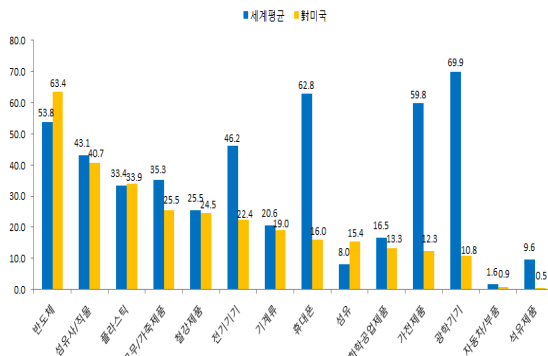
□ 2014년 중국의 對세계 가공무역 수입과 비교해 보면 주요 품목에서 對미국 가공무역 수입의존도는 세계 평균을 하회

○ 반도체, 플라스틱제품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품목에서 세계 평균을 하회

<2014년 중국의 對미국 품목별
가공무역 수입액 및 수입의존도>



<2014년 중국의 對세계 · 對미국
품목별 가공무역 수입의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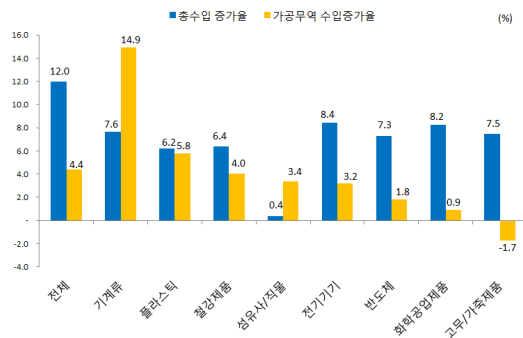
□ 2008-2014년 중국의 對미국 가공무역 수입증가율은 4.4%로 총수입 증가율 (12.0%)의 1/3 수준에 그침

○ 기계류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품목에서 가공무역 수입증가율이 총수입 증가율을 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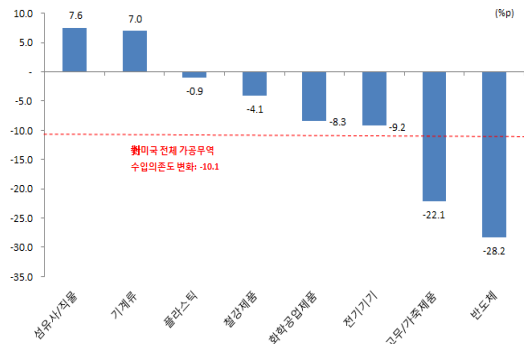
□ 이에 따라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중국의 對미국 가공무역 수입의존도는 2007년 26.2%에서 2014년 16.0%로 하락

○ 반도체(-28.2%p), 고무/가죽제품(-22.1%p), 전기기기(-9.2%) 등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가공무역 수입의존도가 큰 폭 하락

<중국의 對미국 주요 품목별 총수입 및 가공무역 수입증가율('08~'14년, 연평균)>



<중국의 對미국 품목별 가공무역 수입의존도 변화('14-'07년)>



<중국의 對미국 품목별 가공무역 수입의존도 추이>

(단위 : 억달러, %)

품목명	2007년			2014년		
	총수입액	가공무역 수입액	가공무역 수입의존도*	총수입액	가공무역 수입액	가공무역 수입의존도*
반도체	68	62	91.6	111	70	63.4
기계류	94	11	12.0	157	30	19.0
플라스틱제품	45	16	34.8	68	23	33.9
화학공업제품	74	16	21.6	128	17	13.3
전기기기	39	12	31.6	69	16	22.4
철강제품	41	12	28.6	63	15	24.5
섬유사/직물	24	8	33.2	25	10	40.7
고무/가죽제품	18	9	47.6	31	8	25.5
자동차/부품	20	1	3.5	142	1	0.9
휴대폰	11	2	15.5	7	1	16.0
광학기기	1	0	25.7	4	0	10.8
가전제품	3	1	39.8	3	0	12.3
석유제품	4	0	3.4	24	0	0.5
섬유	0	0	33.6	1	0	15.4
전체	694	182	26.2	1,530	245	16.0

* 품목 i에 대한 가공무역 수입의존도 = 품목 i의 가공무역 수입액 / 품목 i의 전체 수입액 × 100

자료 : 해관총서

(5) 종합

- 2007~2014년 기간 중 우리나라의 대중국 가공무역 비중이 경쟁국에 비해 소폭 하락에 그친 것은 반도체, 전기기기의 비중하락이 소폭에 그친데다 광학기기, 휴대폰은 오히려 상승했기 때문
 - (반도체) 중국의 가공무역 수입금액이 높은 반도체의 경우 대만은 가공무역 수입 의존도가 급감한 반면 우리나라는 소폭 하락,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
 - * 중국의 대한국 반도체 가공무역 수입의존도는 2007~2014년 동안 76.3%에서 65.2%로 소폭 하락 (-11.2%p)
 - * 반면 대만의 경우 동 기간 75.4%에서 53.6%로 급감(-21.7%p)
 - (전기기기) 카메라, 축전지 등에서 중국의 대한국 가공무역 수입의존도는 12.0%p 하락했으나 여전히 대세계 평균('14년, 46.2%)을 크게 상회
 - * 중국의 對주요국 전기기기 가공무역 수입의존도 변화('07→'14년, %):
 - 한국 : 73.2 → 61.1 (-12.0%p) 대만 : 73.2 → 47.8 (-25.4%p)
 - 미국 : 31.6 → 22.4 (-9.2%p) 일본 : 53.1 → 44.0 (-9.2%p)
 - (광학기기) 우리나라의 가공무역 수입 금액과 의존도가 높은 광학기기의 경우 우리나라 금액 및 의존도가 확대된 반면 주 경쟁국인 대만은 크게 하락
 - * '14년 중국의 광학기기 전체 가공무역 수입 중 한국 및 대만 비중은 각각 35.4%, 32.0%
 - (휴대폰) 다른 품목과 달리 휴대폰의 경우 중국의 가공무역 수입이 연평균 22.1% 급증한 가운데 중국의 대한국 가공무역 수입의존도는 일본, 대만보다 큰 폭으로 상승(26.9%p)
 - 중국의 일본, 대만에 대한 휴대폰 가공무역 수입의존도도 상승했으나 우리나라와 비교시 수입액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적음
 - * 중국의 휴대폰 가공무역 수입액('14년, 억달러): (한국) 79 (일본) 21 (대만) 17

<중국의 對주요국 품목별 가공무역 수입의존도 추이>

(단위 : 억달러, %)

품목명		전체		한국		대만		일본		미국	
		일반	가공	일반	가공	일반	가공	일반	가공	일반	가공
반도체	'07	137 (10.6)	934 (72.6)	28 (12.8)	168 (76.3)	28 (9.5)	220 (75.4)	10 (6.8)	118 (81.3)	3 (5.1)	62 (91.6)
	'14	456 (20.8)	1,176 (53.8)	94 (18.7)	326 (65.2)	167 (25.1)	357 (53.6)	20 (16.2)	81 (65.7)	6 (5.0)	70 (63.4)
전기 기기	'07	216 (25.7)	489 (58.1)	14 (18.2)	58 (73.2)	9 (11.1)	58 (73.2)	56 (29.0)	103 (53.1)	18 (46.4)	12 (31.6)
	'14	421 (34.6)	563 (46.2)	40 (30.0)	82 (61.1)	21 (19.8)	51 (47.8)	76 (38.5)	87 (44.0)	33 (47.9)	16 (22.4)
광학 기기	'07	35 (7.7)	362 (79.8)	15 (11.2)	89 (65.7)	8 (4.6)	159 (91.7)	3 (6.8)	41 (85.7)	1 (55.1)	0 (25.7)
	'14	65 (13.1)	350 (69.9)	18 (10.3)	124 (70.0)	15 (10.1)	112 (77.4)	6 (8.8)	57 (86.5)	2 (52.7)	0 (10.8)
기계류	'07	422 (41.3)	215 (21.0)	28 (27.6)	25 (24.8)	18 (24.7)	14 (19.9)	104 (42.3)	40 (16.0)	41 (43.3)	11 (12.0)
	'14	860 (57.8)	305 (20.6)	74 (52.2)	29 (20.7)	59 (68.4)	15 (17.9)	187 (64.0)	48 (16.5)	78 (49.4)	30 (19.0)
석유 제품	'07	862 (82.1)	75 (7.1)	34 (51.9)	4 (5.7)	7 (55.2)	0 (2.0)	11 (53.1)	1 (5.7)	3 (71.8)	0 (3.4)
	'14	2,445 (77.2)	303 (9.6)	48 (50.0)	1 (1.0)	9 (72.6)	1 (7.0)	6 (37.6)	2 (9.7)	17 (69.6)	0 (0.5)
휴대폰	'07	67 (35.4)	94 (49.8)	10 (28.5)	22 (61.8)	3 (38.0)	5 (55.8)	2 (26.0)	6 (62.6)	8 (69.1)	2 (15.5)
	'14	111 (25.2)	275 (62.8)	8 (9.0)	79 (88.6)	3 (11.1)	17 (64.6)	4 (17.0)	21 (80.3)	5 (67.7)	1 (16.0)
플라스틱 제품	'07	170 (37.6)	239 (52.8)	26 (34.1)	47 (61.5)	22 (26.6)	58 (69.2)	25 (33.1)	41 (54.0)	22 (48.1)	16 (34.8)
	'14	424 (56.4)	251 (33.4)	67 (54.0)	51 (40.9)	45 (44.9)	49 (48.4)	50 (50.5)	37 (36.8)	37 (54.0)	23 (33.9)
철강 제품	'07	345 (47.1)	297 (40.5)	27 (34.5)	46 (59.3)	13 (17.3)	61 (78.1)	69 (47.0)	68 (46.5)	27 (66.5)	12 (28.6)
	'14	534 (56.4)	241 (25.5)	47 (52.6)	36 (40.2)	18 (34.8)	29 (55.8)	87 (57.2)	53 (35.3)	42 (67.6)	15 (24.5)
화학 제품	'07	442 (64.5)	155 (22.6)	75 (69.0)	24 (22.2)	50 (60.2)	23 (27.9)	73 (59.2)	39 (31.6)	47 (63.1)	16 (21.6)
	'14	795 (63.3)	207 (16.5)	116 (62.8)	51 (27.7)	75 (68.4)	21 (19.0)	108 (63.8)	43 (25.4)	81 (63.2)	17 (13.3)
섬유사/ 직물	'07	57 (24.3)	156 (66.8)	3 (13.0)	22 (85.7)	6 (18.3)	26 (80.0)	5 (13.1)	29 (83.5)	11 (47.7)	8 (33.2)
	'14	133 (44.6)	129 (43.1)	7 (29.9)	15 (66.5)	11 (37.1)	17 (59.3)	10 (32.8)	19 (62.6)	9 (35.8)	10 (40.7)
고무/ 가죽 제품	'07	53 (33.9)	89 (57.3)	3 (25.1)	10 (75.3)	2 (20.7)	8 (77.7)	6 (48.2)	6 (45.4)	9 (47.8)	9 (47.6)
	'14	140 (54.7)	90 (35.3)	6 (25.9)	10 (61.3)	2 (33.6)	4 (64.2)	12 (64.2)	6 (29.6)	20 (66.6)	8 (25.5)
가전 제품	'07	28 (24.7)	73 (63.1)	3 (25.6)	8 (70.2)	1 (8.2)	8 (85.3)	7 (21.5)	17 (55.0)	1 (40.1)	1 (39.8)
	'14	31 (28.4)	65 (59.8)	6 (30.8)	13 (67.4)	1 (14.7)	7 (77.1)	4 (25.5)	10 (65.1)	2 (62.1)	0 (12.3)
전체	'07	4,287 (44.8)	3,684 (38.5)	302 (29.1)	561 (54.1)	183 (18.1)	691 (68.4)	505 (37.7)	594 (44.3)	360 (51.9)	182 (26.2)
	'14	10,579 (54.0)	4,943 (25.2)	635 (33.4)	986 (51.9)	487 (32.1)	762 (50.1)	837 (51.5)	552 (34.0)	906 (59.2)	245 (16.0)

주 : 괄호는 수입의존도(%)

자료 : 해관총서

Ⅲ. 결론 및 시사점

- 최근 중국의 가공무역 수입증가세 둔화는 대중 가공무역 비중이 높은 아시아 국가들의 수출에 불안요인으로 대두
 - 금융위기 직후 최근까지 중국의 국별 수입에서 상대적으로 가공무역 비중이 높은 한국, 대만,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의 부진이 두드러짐
 - 향후 중국이 내수중심 성장, 신산업 육성, 무역 부가가치 향상 등을 추진하면서 단순 가공무역 비중은 추세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최근까지 일본, 대만 등은 가공무역 비중이 큰 폭 하락한 반면 우리나라는 비중 하락이 크지 않아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은 불안정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임
-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에 대응한 고부가가치 수출상품 개발, 한-중 FTA 활용방안 마련, 전자상거래 채널을 활용한 중국 내수시장 공략 등 대중 수출 확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중국은 ‘중국제조 2025전략’을 통해 제조업 선진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는 가운데 이러한 중국의 트렌드 변화에 발맞춰 고부가가치 수출상품 개발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
 - 중국 당국이 첨단장비, 집적회로, 신에너지, 신소재, 바이오, 항공엔진, 가스터빈 분야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한편 모바일,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IoT(사물인터넷) 등 IT 서비스를 제조업에 응용하려는 노력도 시도하고 있어 관련 분야에 대한 수출 상품 개발이 유망할 것으로 전망됨
 - 대중 수출 확대를 위해 향후 발효될 한-중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도 있음
 - 한-중 FTA 체결이 국내 내수형 중소·중견기업들의 대중 수출기업화에 유리한 조건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향후 발효될 한-중 FTA 활용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

○ 또한 전자상거래 인프라를 활용한 적극적인 중국 내수시장 진출에도 주력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중국 상무부는 소비재, 생활용품에 대한 관세율을 임시적으로 인하*하는 등 내수 확대에 주력하고 있어 Kmall24를 비롯한 온라인 전자상거래 채널을 통한 중소기업 수출 확대 노력 필요

* 2015년 749개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율을 잠정 인하
(예) 침구류(HS 94049010) 관세율(MFN): 20% → 10%

중국의 가공무역 수입 변화 및 시사점

Trade Focus Vol.14 No.13

발행인 | 김인호

편집인 | 김극수

발행처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발행일 | 2015년 4월 27일

인쇄처 | (주)보성인쇄기획

등록일자 | 1960년 5월 26일

등록번호 | 2-97호